

Ren Xiao, "Towards a Chinese school of IR?"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국제정치학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중국학파의 필요성과 형성 문제

발전의 초기 단계 -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 요구 / 이데올로적, 정책적 목적이라는 비판 직면

2000년대 들어 Chinese school에 대한 요구 등장

- 북경대 Mei Ran, 복단대 Ren Xiao / 중국외교학원의 Qin Yaqin / 남경대 Li Bin의 본토화 주장

Qin Yaqin의 중국학파 옹호

- 중국학파의 3개 원천: 천하관과 조공제, 혁명 사상과 실천, 개혁개방의 사상과 실천

- 중국의 국제체제와의 상호작용과 논쟁은 중국학파 형성으로 귀결

중국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자 문명으로서 한국 같은 나라보다는 문화적, 학문적으로 자의식이 강할 수밖에

영국학파로부터 배우기

- Wight, Bull, Buzan 등 영국학파의 인문학적,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 영국학파가 가능하다면 중국학파도 가능

중국학파란?

- 단일한 학파가 아니라 중국적 특색을 지닌 복수 학파들의 클러스터(Pang Zhongying, Yu Zhengliang)

- 중국 국제정치학의 단원주의(Yan Xuetong)와 다원주의(Qin Yaqing, Ren Xiao) / 다차원적 네트워크 구조(Yu Zhengliang)

중국학파의 핵심적 이론적 문제

- 중국의 국제공동체로의 평화적인 통합 / 현실주의는 부상하는 강대국의 평화적 통합에 부정적, 자유주의와 구성주의는 경험적 연구 부재(Qin Yaqing)

#### 과학적 접근과 인문학적 접근

- 과학적 접근과 인문학적 접근의 수렴, 조합, 통합, 융합을 추구(Qin)
- 역사적 성찰의 중요성, 국제정치이론이 현실주의 + 자유주의 + 구성주의 인거처럼 간주하고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는 것의 한계(Shi Yinhong)

#### 중국 문화는 국제정치이론의 건설에 어떤 기여?

- 중국의 전통문화는 조화, 균형 안정을 추구 / 인의예지신 등 중국 문화는 유용한 국제규범을 제공
- 중국 외교사의 풍부한 실천 경험(Ye Zicheng의 전국시대 연구)

#### 중국학과의 4가지 핵심 이슈

- 가능성과 필요성, 핵심 문제설정, 과학적 접근과 인문학적 접근, 중국 문화 원천의 활용

1. 서론

최근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질문은 많지만 대답은 희소함. 로버트 로스와 주평의 연구는 충돌 불가피론과 민주평화론을 모두 비판하고,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과 평화로운 세력전이의 가능성을 제시함.

2. 페어뱅크와 왕궁우

과거 중화질서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현대 중국의 세계질서관을 설명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폴 에반스는 페어뱅크와 왕궁우의 작업들을 통해 일정한 현재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함.

페어뱅크는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그의 학문적 활동은 미국(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루어짐. 그의 관점은 'from the inside out.'(바깥에서 중국의 내부를 읽어내는 것) 그는 에드먼드 라이사워와 마찬가지로 '극동'이 아닌 '동아시아'에 초점을 둠. 왕궁우는 화교 출신으로서 동남아시아에서 활동. 그의 작업들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주로 이루어짐. 그는 중국의 안이자 밖인 공간(in-between)에서 중국을 관찰.

두 학자 모두 서구 문화의 우월성이나, 서구의 제도가 아시아에 곧장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음. 그러나 페어뱅크가 중국 문화의 권위주의 등을 강조했다면, 왕궁우는 중국이 전통과 근대를 잘 혼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3. 중국적 세계질서 : 페어뱅크와 서구에 대한 중국의 대응

페어뱅크의 옥스퍼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36)은 중국 외교관계 속의 조약항의 문제. 페어뱅크는 서구의 충격을 통해서야 비로소 중국의 근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 유교는 복잡성을 지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주의나 효과적인 근대화가 가능하지 않았음. 그가 공산 중국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이유는 공산당 정권이 중국의 제국 질서 하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었음.

<중국적 세계질서>(1968). 이 책은 전통 중국적 세계질서인 조공 체제가 1911년 청의 멸망으로 인해 서양 식 조약 체제로 편입된다는 입장을 피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어뱅크는 공산 중국에서도 전통적인 중국의 사고방식(내륙 아시아의 중요성, 약한 해방론, 중국의 우월성, 위계적인 사고 등)이 나타난다고 보았음.

중국의 제3세계 지원은 세계지배의 방식이 아니라, 중국 혁명을 일종의 모델로, 다른 국가들이 이를 배우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페어뱅크는 주장. 또한 페어뱅크는 중국인들은 '천하' 관념으로 인해 중국의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보았음.

#### 4. 왕궁우 : 중국적 세계질서의 안과 밖

왕궁우는 페어뱅크의 <세계질서> 작업에도 참여했음. 여기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중국이 위계적 세계질서관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현실과 조응하는 매우 유연한 세계질서관이라는 점. 그는 중국이 중원을 넘어 군사적 팽창을 하는 경우가 없다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페어뱅크와 유사함.

왕궁우는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개념이 중국인들에게는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되나, 그것의 수용은 중국적일 것이라고 보았음. 이를 수용하라고 외부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페어뱅크가 서구 질서의 수용의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왕궁우는 중국적 수용에 더 초점을 맞춤. 왕궁우는 중국이 존중받는다면, 중국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해서도 현상변경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봄.

#### 5. 파악하기 어려운 보편주의 : 민주주의와 인권

페어뱅크와 왕궁우는 둘 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서구적인 것이지만, 보편적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일치. 그러나 천안문 사건을 보는 시각은 달랐음. 페어뱅크는 천안문 사건에서 공산당이 보여준 대응이 중국의 전통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음. 반면 왕궁우는 천안문 학생들의 시위가 중국 내에 존재하는 '과학',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음. 왕궁우는 중국이 국제질서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역시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

#### 6. 역사가와 국제정치 이론

페어뱅크와 왕궁우는 모두 서구와 중국이 꼭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존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관여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이며, 상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 상호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음.

페어뱅크와 왕궁우 모두 보편 이론의 수립에는 큰 관심이 없었음. 그는 '다양한 현실'을 신뢰. 하지만 정책 차원의 영역에서 보면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강대국이 될수록, 중국이 자신의 가치를 국제질서에 투여하지 않겠다는 점.

5.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Broadening the conceptual horizon of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

Zhang Feng

<Introduction>

\* 문제의식

1. 과연 동아시아 대외관계를 조공체제와 중화주의(중국우월주의)로 볼 수 있나?
2. 조공체제는 상수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것인가?
3. 조공체제로 설명되지 않는 비조공체제적인 동아시아 대외관계가 존재했고 이러한 관계가 빈번했다면 과연 조공체제를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4. 조공체제는 변화를 경험했고 중국의 힘 중국과 주변국가의 힘의 배분,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의 안보와 이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면 독립변수가 되기보다는 종속변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The tribute system: three views>

1. The first view -> 패어뱅크의 해석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대의 관계의 핵심구성요소로서 중화주의 혹은 중국 우월주의를 반영하는 문화적 체계로 보아야 한다. 조공체제로서 중국중심의 질서를 파악함;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조공을 통한 위계적 관계임
2. The second view -> 대외관계의 관료적 관리; 사신을 맞는 관료제, 형식, 절차로서 조공을 보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각임; 이러한 시각의 문제는 중국과 주변국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보지 못하고 중국에서만 바라보는 조공에 대한 시각만을 제공함
3. The third view -> 영국학파가 보듯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제도로서 파악될 수도 있음; 동아시아 질서의 유지를 위한 중국중심의 국제사회의 제도화의 산물이 조공체제임; 문제는 조공 외에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다른 제도도 존재했다는 점, 조공체제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해서 지니는 설명력의 타당성 문제, 역사적으로 다양한 조공체제가 존재했다는 점 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임

<The inherent weakness of the model>

- \* 세 가지 각도에서 패어뱅크가 본 조공체제와 중화주의(sino-centrism)를 비판함

1) Assumptions

- \* 패어뱅크가 본 동아시아 질서에 관한 모델에 있어서 근본가정은 중화주의로서 중국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며, 특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자부해 왔다고 하는 점이다.

\* 비판 1 -> 그러나 중화주의는 중국이 통일되어 강하고 따라서 대외환경이 유리할 때만 실행하는 한 것이었다; 중국이 분열되거나 약한 경우에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화주의, 즉 중국의 상시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는 동떨어진 myth이다 -> Willis Chinese rulers' "actions and policies may have been shaped more by the logic of the situation than by the distinctive world-views and values of the Sinocentric tribute ideologies"(82)

\* 중국의 우월성, 중화주의는 과장되어서는 안되며, 중화주의의 정책적 효과는 사례별로 다르고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비판 2 -> 중화주의 가정의 일방성 혹은 불완전성(one-sidedness or incompleteness)의 문제, 즉 중국의 우월성에 대해서 중국의 지배자들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느꼈다할지라도 외국 지배자들이 이러한 중국 우월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음; 외국 지배자의 수동성을 당연시 하지만 과연 이들도 이러한 중화주의를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임

\* 비판 3 -> 중화주의적인 중국 및 동아시아사 서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풍미했던 미국의 사회-문화적 설명경향에 경도된 것으로서 권력, 이익, 안보 등이 크게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던 경향의 산물임(83) -> 동아시아에 존재한다고 가정된 독특한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가 서술됨 -> (84) "Progress in theorizing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 will require turning away from the assumption of Chinese or Asian uniqueness and instead looking for patterns of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in political dynamics across different regions.

\* 이러한 중화주의라는 가정상의 결점 세 가지, 즉 the failure to deconstruct sinocentrism, to deal squarely with other countries' foreign policy assumptions, and to move beyond cultural stereotypes 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함

## 2) Logic

\* 비판 1: 과연 페어뱅크가 주장하는대로 중국의 우월성과 이에 따른 위계질서에 왜 다른 국가들이 따른 (혹은 따라야만 했다고 추정되는) 것일까? -> 유교적 문화의 매력이라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베트남이나 일본 등 각국 역시 자신들이 나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어떻게 중화주의가 구체적으로 위계질서를 만들어내었는지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 없다.

\* 특히 북방민족의 경우는 중화권 밖인데 어들과의 관계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중화권 국가와의 trade and tribute로만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양상이 있다 -> 관계의 다양성을 보아야 한다(85)

\* 비단 2: 중국측에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지만 상대국가는 다양한 동기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국의 다양한 동기 등에 대한 시각이 결여된 biased된 시각이다

\*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변화의 여지가 없는 중화주의와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적인 시각이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세계관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 -> 반복되어온 조공 의례를 역사서가 강조하다 보니 실제로 조공관계의 변화상, 상대국의 전략과 동기의 변화 등 동적인 측면을 많이 놓치고 있다

#### <The Model and the early Ming case>

\* 과연 얼마나 홍무, 영락 연간의 명과 조선, 일본, 몽골 관계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지 보자

#### 1) 중화주의 가정

-> 영락제가 Timurid Empire의 지배자를 역시 fellow monarch로 부른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가장 강력한 우월성을 자랑할 수 있었던 시기에도 중국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 대외관계에서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보였다: pragmatism vs. sinocentrism

#### 2) 서술적인 정확성

\* 조교의 절차와 관행이 명-조선에서는 지켜졌는지 모르나, 명-왜, 명-몽골 관계에서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공절서의 중화주의는 서술적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다.

\* 이것이 왜와 몽골이 명과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논박한다면 조공체제와 중화주의 설명력은 매우 지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실제로 명과 왜 및 몽골은 해적, 사신의 침수, 전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것이 관계가 아니면 무엇인가? -> 명과 주변국의 관계는 조공관계로만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넓은 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87)

\* 물론 페어뱅크와 그의 추종자들이 조공관계가 중국의 모든 대외관계를 규정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러한 조공관계가 편재(遍在)(ubiquitous)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거나 가장 중요하고 보는 것은 사실이다.

#### 3) 해석능력

\* 명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해석해 내는 설명력에 문제가 많다.

\* 조공관계는 중국의 조공체제의 동기는 위신, 목적인 방어, 전략은 설득이고 주변국의 동기는 교역이고 전략은 순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중국 역시 안보를 위해서 만주를 염려

했고 몽골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는 등 기타 다양한 형태의 대외관계 양상이 있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 주변국 역시 순응적인 조공에서 조공을 거부하는 저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 여말선초, 명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고려와 조선은 요동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고려, 조선에 안보이익이 매우 중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몽골 역시 초원지역에 대한 명의 지배를 우려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저항했다.

\* 페어뱅크 역시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군사적 정복, 행정적 통제, 문화-이념적 흡인력, 외교적 통제 등 다양한 방식은 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모델로 만들어 내지 못했고, 단지 문화적-이념적 흡인력에 해당하는 조공체계만을 집중적으로 제시함 -> 중국 대외관계의 다양한 면모를 보지 못하게 만들 -> (90)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가 사라지고 대신 monolithis and omnipotent tribute system만이 남게 됨 ->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성의 왜곡

#### <Beyond the tribute system>

\* 조공체제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보는 것의 두 가지 문제점

1. 2차적 문제점 -> 결코 조공체제는 단일하거나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진화해 온 제도로서 조공체제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는 과거의 전통과 당대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92) -> 따라서 조공체제는 결코 독립변수일 수 없다. 힘의 역학관계가 동아시아 지배자들 간의 이익이 만들어낸 종속변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힘의 관계와 이해관계가 바뀌면 연동되어 변화하는 것이 조공체계다
2.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 은 조공체제는 수많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양상 가운데 하나의 제도일 뿐이면, 이 외에 전쟁, 협박, 도전 그리고 기타 다른 제도 등이 병존해 왔다는 점이다.

\*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보면 우리는 조공체제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가려 내고 이를 각각 설명할 수 있거나 혹은 통합적으로 보는 분석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 따라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보다 우월한 개념(그것이 권력, 안보, 문화 등의 개념을 동원하든지 여부에 상관없이)이 필요하며, 조공체제로 이를 파악하는 진영은 보편적인 틀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공체제와 그렇지 않는 관계를 모두 설명해 내는 분석틀이 필요하다.(93)

\* 저자의 시론 -> 조공체제를 중국의 힘이 약해도 표출되었던 제국의 담론으로 볼 수도 있



고, 혹은 중국의 강약에 따라서(혹은 강한 통일 중국 계국 간에도) 표출된 차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대외관계의 유형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때 과정은 단순적 상수를 행태적인 변화와 함께 설명하는 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중국 통치자의 동기를 정당성과 안보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정당성: 정당성은 중국의 황제가 천자로서 왜 조공체계의 중화주의가 상수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힘의 배분에 관계없이 왜 정당성에 대한 필요가 항상 존재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2. 안보: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의 동기가 중국 왕조의 대외정벌, 고립정책, 무관심 등의 변이를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보라는 동기변수를 필요로 한다. 즉 중국 역시 안보에 대한 불안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역대 왕조가 행동하면서 대외관계의 행태적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명과 남송은 정당성으로서의 조공체제와 중국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담론을 보유했지만 국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조공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력이나 기타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용의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공체제가 중국의 대외관계의 전부가 아니었음이 설명될 수 있다.

#### <Conclusion>

\*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페이뱅크의 모델은(조공체제의 중국 대외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견해)는

- 내적인 논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대외관계 역사의 주요사건을 해석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는 변화나 변이를 설명 못한다; Willis "...we could not keep in focus all aspects of the Chinese diplomatic tradition, all sources of conflict, if we began by calling all of the Chinese diplomatic tradition the 'tribute system'."

\* 비록 페이뱅크가 자신의 연구를 예비적 틀 이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뛰어 넘어서서 역사적인 동아시아 정치를 구체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IR과 역사가 협조해야 한다.

\* 조공체제는 분석의 단위가 될 수 없고(IR에서 보는 제도와 같은), 각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던 현상으로 설명의 객체이다. 조공체제를 essentialization 식의 접근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실제로는 없고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 object로서 조공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96)

\* 그러나 이렇게 조공체제를 설명의 대상으로 다룬다고 해도 문제는 조공체제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현상이 역사적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왔다는 점이다. 조공체제 없이도 역사적 동아시아 관계는 설명될 수 있다. 조공을 체계로 분석한 것은 19세기 서양이며 중국이 이를 조공체제로 다시 번역했지, 실은 중국은 조공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이다.

\* 즉 구체적인 동아시아 관계는 조공체제보다 훨씬 넓은 동아시아 정치의 국제체제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Ren Xiao, "Traditional Chinese Theory and Practice of Foreign Relations: A Reassessment" Zheng Yongnian ed. *Chin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hinese View and the Contribution of Wang Gungwu*. Routledge, 2010.

발제 최인호

• 저자소개(任曉)

-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교수
- 초기 동북아 3국 연구, 이후 이론 및 중국

• 논지

- 왕궁우의 조공체제 비판에 기초해서 전통중국외교관계 이론과 실천을 재평가
  - 1) 조공체제는 현실이 아니라 레토릭이거나 성취해야 될 이상이었음. 실질적인 지배복종관계가 아님
  - 2) 조공체제는 방어가 목적이었음
  - 3) 조공체제에는 영토적 야심이 없음
- 조공체제에서는 그리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중국의 이미지는 잘못되었으며, 중국의 전통외교의 실천과 행위를 볼 때 중국은 현재 갈등적인 국제체제를 넘어서 조화롭고 호혜적인 국제관계의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 관대한 강대국, 질서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음.
- 형식적인 불평등 관계를 제거한 과거의 예에 기초한 지위의 분배는 현재에도 매력적인 질서가 될 수 있음.

• 강-약의 호혜적 조공관계

- 조공관계는 겉으로는 불평등관계였으나 약소국의 이득과 자립을 보장하는 호혜적 관계. ex) 청 曾紀澤의 발언
- 동심원적 구조의 질서 속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 이득을 얻음. 강대국은 四夷를 통해 외부의 버퍼 존을 형성. 약소국은 중국과의 교류, 안보, 국내정치적 정당성에서 이득.
- 중요한 이론적 전거. 맹자 양혜왕장구 3장. "齊宣王問曰文隣國有道乎..." 좌전 애공 7년 "小所以事大信也 大所以保小仁也 ..."
- 역사상 불평등 국제관계 관리의 가장 풍부한 사례 제공

• 德과 禮의 조직원리

- 주대 이후 덕치 전통 확립.
- 중국 사회 德, 禮의 원칙이 국제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이해
- 예치에서는 설득과, 장기적 안목이 중요

• 자오팅양의 천하체론

- 지리, 정치, 문화, 윤리의 공간으로서 천하개념. 공적인 정치공간을 표하는 개념 天下爲公
- 서구 국제체제와는 다른 포섭적 공간.
- 중국의 매력전통은 소프트 파워 전통보다 훨씬 장구함. 기독교 국가들과는 달리 포교가 아니라 끌어당기는 매력 전통.
- 천하는 갈등이 아닌 조화를 발상할 수 있음. 우적관계를 넘어선 국제정치 상상가능.
- 천하체제는 또 다른 패권이라는 칼리한의 비판에 대해 천하는 포섭적 공간이라는 논리로 재

반박

- 천하관이 서구식 선거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질문

- Ren Xiao의 논지 또한 자오팅양의 천하체계와 마찬가지로 다분히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정책, 신형대국관계 정책의 선전 이데올로기적인 뉘앙스가 있음. "embedded in discursive network of China's top political leaders" Callahan(2011)
- 禮를 통한 지배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논자에 따라서는 禮를 통한 지배도 자의적 일방적이라고 보기도 함(예 Hevia(1995), 夫馬進(2015)). 禮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 레토릭과 현실을 구분해서 현실만 취하자는 것보다는 레토릭 자체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지 않는가? 중국제국질서의 텍스트성 자체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존재.
- 조공체계의 프랙달이론. Ren Xiao 및 장펑 모두 중국이외 국가들의 독자적인 조공체계 수립 노력 지적. 중국 중심 조공체계와 타국의 조공체계를 모두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이론화해야 하는가(일본의 소망)? 명청시대 일본의 독자적인 조공관계와 중국 중심의 질서를 어떻게 통합해서 이론화 하는가?
- 중국 국내정치와 조공체계의 연관. Ren Xiao의 말대로 천하 속에서 안과 밖의 구분이 근대 국제체제보다 다층적이었다면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이해를 위해 중국 국내정치질서의 이해도 필요하지 않은가? 명청시기 중국 황제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무엇이었나?
- Ren Xiao가 결론에서 시도한 것처럼 과거의 전통질서와 현대외교정책의 사례를 연결시키는 작업은 유의미한가? Zhang Feng의 이야기처럼 전통질서가 매우 복합적이었던면 전통질서의 유산을 단순논리로 현대 외교정책의 사례와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

Barry Buzan & Yingjin Zhang, Introduction: interrogating regional international society in East Asia

- 책의 목적: 영국학파의 '과도한 보편주의(excessive universalism)'을 지양 - ① 비교국제사회론(comparative international societies, Martin Wight, Adam Watson의 유산 계승); ② 'expansion story'의 극복: 서구에서 기원한, 보편적 주권원칙에 근거한 동질적인 국제사회의 확산을 강조하는 기존 시각('Western-global international society view')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분화, 차별성을 강조하는 영국학파 국제정치이론의 개발.
- 'Western-global international society view'의 두 가지 주장 - ① 'globalization view': 글로벌 차원의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고 주장; ② 'post-colonial view': 국제사회를 중심부-주변부의 불균등한 구조로 이해. 특권화된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저항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중심부의 영향력이 약화된다고 봄.
- '지역국제사회(regional international societies)' - 국가의 유형, 문명의 유형, Western-global society와의 차별화 정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 유럽 역시 하나의 독자적인 지역국제사회로 간주되어야 함.
- 동아시아는 어떤 종류의 '지역국제사회'인가?
  - ① 국가유형에 따른 분류: 매우 다양한 유형의 국가들이 공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아프리카 국가, 버마와 베트남은 중동국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라틴아메리카,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유럽국가와 같은 유형. 북한은 러시아-백러시아, 중국은 'sui generis'
  - ② 문명유형에 따른 분류: 역시 다양한 문명의 공존. 유교, 불교, 이슬람 문명권
  - ③ Western-global society와의 관계 양상에 따른 분류: repopulation(라틴아메리카), colonization/decolonization(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encounter/reform(중국, 일본, 한국)
- 영국학파는 동아시아 지역국제사회의 설명에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음.
  - ① 지역연구에 대한 이론들의 제공
  - ② 현실주의적 시각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이해에 대한 'non-materialist' 대안 제공
  - ③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모호성('overarching ambiguity')에 관한 설명.
- 어떻게?: 지역국제사회의 '사회구조(social structures)'와 '주요제도(primary institutions: sovereignty, territoriality, diplomacy, international law, great power management,

non-intervention, nationalism, human rights, environmental stewardship, war, balance of power, democracy ... )'에 주목함으로써

- 무엇을?

- ① 역사적 깊이의 제공: 중국이 중심이 되는 조공질서와 일본의 제국주의 질서, 국가형성과정의 역사적 다양성에 주목.
- ② 동아시아 power politics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설명. 세력균형의 부재, 중국과 일본이 지역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아세안의 상대적으로 큰 비중, 미국의 역할
- ③ 국제제도,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들 사이의 협력에 관한 설명. 특히 'ASEAN Way'에 관한 담론의 중요성.
- ④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설명.

◎ Feng Zhang, "International societies in pre-modern East Asia: a preliminary framework" (2014)

1. 서론

○ 질문: 중국의 제국시대(BC221-AD1911) 동아시아에 국제사회가 존재했는가?

- 전통 영국학파(마틴 화이트, 헤들리 불)의 상대적 무관심

전국시대에는 유사 주권제들 간의 국제사회 존재, 그 나머지 시기는 국제체제(int'l state system)가 아닌 종주국 체제(suzerain-state system)

- 신세대 영국학파(베리 부잔, 리차드 리블, 용진장)의 변화

법적 주권으로 국제사회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유럽중심주의 비판: 용진장은 조공체제를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 제도로 봄

- IR의 조공체제 주목

조공체제(tribute system)를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근간으로 보는 것은, 페어뱅크의 영향. 미국 IR에서는 데이빗 강이 일조. 중국 사학 및 IR학계에서도 관심 급증

- 역사학계의 흐름

정작 역사학계에서는 그간 페어뱅크의 '중국적 세계질서'론 비판 작업 축적 (크로슬리, 디코스모, 엘리엇, 플레처, 헤비아, 린, 밀워드, 퍼듀, 로사비, 월드론, 윌스)

○ 주장: 조공체제는 그 자체로 체제(system)나 사회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상 기초 제도(primary institution)의 하나; 동아시아 역사상 두 개의 기초 국제사회의 존재; 영국학파의 이론론 안에서 동아시아 전통 정치의 사회 구조와 제도적 관행 검토 시도

※ [참고] 기초 제도와 이차 제도

▶ primary institutions(홀스티, 부잔, 원보르그): deep and relatively durable social practices/ evolved more than designed/ 국제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정당한 행동(legitimate behavior)으로 인지, 공유되어야 함/ 정체성/ 기초제도는 국제사회의 멤버십 기준이 되며, 행위자 상호작용의 정당성 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구성적 효과 지님/ 역사상 국제사회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상정 가능 ex) 웨스트팔리아 세트: 주권, 영토성, 세력균형, 전쟁, 외교, 국제법, 강대국 관리

▶ secondary institutions: intergovernmental arrangements consciously designed by states to serve specific functional purposes/ 레짐이론, 자유주의 제도주의

2. 번속과 적국의 국제사회들: 이론

(1) 번속 국제사회

○ 중국의 패권을 전제로 함. 조공체제는 패권("material conditions of primacy underpinned by social understandings")적 제도의 일환

- 번속 사회의 구성원: 중국+중국적 중심성을 받아들이는 유동적 범위의 정치체들
- 중국 중심적 규범, 규칙, 제도를 수용

- 번(藩): 봉토를 받은 왕과 제후 or 중국 왕조에 복속한 주변 약소국
- 속(屬): 중국의 주변국을 가리키는 말로 전한 시대 최초 사용
- 번속(藩屬): 청대에 와서, 청조에 조공책봉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대외관계 용어로 사용
- 번 or 번부(藩部): 이변원(理藩院) 관할의 몽고, 신장, 티벳
- 속: 조선, 베트남, 유구, 버마

○ 'suzerainty'로 번역시 문제점

번속체제에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한, 타국에 간섭 안 함; 특히 경제적 착취가 없다는 점에서 유럽 식민주의와 차별화

○ 번속사회의 범위와 통합성은 중국사상 다양: 두 개의 이론적 질문 ① 국제사회의 경계 ② 국제사회 구성요인으로서 문화의 역할

→ 국제사회가 패권적 제도로 유지될 때, 지배 국가의 힘에 따라 국제사회의 경계는 유동적이고, 문화변수가 결정적이지 않음(번속 국제사회는 문화접변(한화) & 군사정복 양자에 의해 확장)

(2) 적국 국제사회

○ 동등한 지위

- 중국과 유목·반농반목 민족들 간의 관계
- 중국과 동아시아가 분열되어서 번속 체제적 패권 사회를 수립, 유지할 지배국가가 없을 때

○ 적국(敵國): 원래 한족-유목민족 관계에서 ① 동등한 지위의 국가들 ② 경쟁과 대립 관계 가리키는 말/ 동등한 지위, 공존, 경쟁

○ 원대와 청대를 제외하고 동아시아 역사상 계속 존재: 예외적인 현상 아니었음

- 중국이 통일& 강력할 때: 번속과 적국 사회 증척 작동. 번속 실패한 곳에 적국 존재
- 중국이 분열& 약할 때: 다양한 행위자들(한족, 비한족, 유목민과 농경민)로 이루어진 적국 사회

○ 하위체제 수준 패권적 번속사회들의 공존: 흉노, 투르크, 한국, 베트남

동아시아 국제사회

= 두 개의 기초 국제사회(번속, 적국) + 중국 이외 강력한 정치체가 이끄는 하위 번속사회들



의 공존

→ 'a layered/nested hegemony'

### 3. 역사

[표 2-1] 중국 제국왕조와 기초 국제사회들 (37p)

왕조	기간	기초 국제사회
전한	206BC-AD8	한 중심 번속사회 한, 흉노, 서부지역 부족국가들의 적국사회
후한	25-220	한 중심 번속사회 한, 흉노, 강, 오환, 선비의 적국사회
위진남북조	220-589	탈중심적 동아시아 세계의 적국사회
수	589-618	수 중심 번속사회 수, 투르크, 고구려의 적국사회
당	618-907	당 중심 번속사회 당, 투르크, 고구려, 티벳, 위구르의 적국사회
오대십국	907-960	탈중심적 동아시아 세계의 적국사회
송	960-1279	송, 요, 금, 서하, 몽골의 적국사회
원	1279-1368	유라시아의 원 군사제국
명	1368-1644	명 중심 번속사회 명, 몽골, 만주의 적국사회
청	1644-1911	청 중심 번속사회

### 4. 번속사회의 제도

○ 영국학파 국제사회 이론

- 국제사회는 공유된 이익과 정체성의 제도화로 형성: 규범, 규칙, 제도의 창조와 유지가 관건  
- 기초제도: 가치에 기초한 공유된 관행/ 규범, 규칙, 원리의 복합적 발현

○ 번속사회의 규범: 중국 중심주의

- 주변국가들은 중국의 중심성, 우월성 인정하고 중국 국경 방위에 조력  
- 중국은 지역에 평화, 안정, 질서 제공

○ 번속사회의 규칙: 조공, 인질(한당시대 유목민족)...→명청시대 의례로 법전화

[표 2-2] 전근대 동아시아의 기초사회와 기초제도 (47p)

국제사회	특수제도	공통제도
번속 (중국패권)	조공체제	사(使), 무역, 전쟁
적국 (경쟁 동등)	화친, 조약, 세력균형	

○ 번속사회의 기초제도: 조공체제

- 중국 내부의 관행으로 시작, 한무제 이후 대외관계 제도로 발전, 명청대에 가장 성숙
- 책봉, 책명 또한 중요함. 중국은 조공국가들 가운데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국가만 책봉 (일본, 한국, 베트남)
- 조공체제는 그 자체로 세계질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됨 (패어뱅크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 조공체제의 기능 ① 번속사회의 멤버십 수립 ② 지위를 규정 ③ 권위적 의사소통 (authoritative communication: 부잔)의 주요 채널 ④ 전략적(변경 방어), 정치적(regime legitimacy 왕조 정통성), 경제적(무역 이득) 목적 달성 수단

5. 적국사회의 제도

○ 중국과 유목민족 모두 일정한 규칙과 제도 발전에 힘썼다는 점에서 '사회': 합리적 수준의 질서 존재

○ 적국사회의 규범: 위계적 번속사회와 달리 정치외교적 동등성

○ 기초제도 1: 화친(和親)

- 198BC-134BC 전한과 흉노 관계: 혼인, 세폐
- 국제사회의 기초제도로써 화친의 기능 ① 멤버십 (한, 흉노를 지역정치의 정당한 행위자로 인정) ② 권위적 의사소통 ③ 무력사용의 제한 ④ 소유권의 배분 (장성을 각자 영향권의 경계로 설정, 각자의 번속국가 지배 인정)

○ 기초제도 2: 조약

- 맹(盟)/약(約), 맹서(盟誓): 유목민족 전통적 관행
- 화친은 조약의 일환=혼인 조약 체제로 볼 수도 있음
- '계약적 관계'(contractual relations): 우호, 정당한 이익, 국경에 대한 동의, 사절단의 형태 및 의무 등 근대 외교의 기초적 형태 (왕궁우)
- 당(당 태종은 투르크 유목민족 정치에 정통, 이용) 송(힘의 열세로 인한 필요: 1005년 전연 지맹)이 조약을 통해 유목민족과 평화 유지

○ 기초제도 3: 세력균형

- 중국의 분열기. 후한 멸망 뒤 위촉오 삼국시대(220-280)
- 단, 영국학파이론에서 사회적 제도로서 세력균형은, 구성 국가들이 체제적 균형을 달성하려는 의식적 욕구를 가지고 외교정책 목표로 추구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중국역사에서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이념은 the goal of balance가 아니라 the goal of unification 으로 보임

6. 공통제도

○ 사절

근대 유럽 외교의 상주사절 제도 대신, 전통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권위적 의사소통(조공, 책봉, 화친, 조약)의 실행 제도

○ 무역

- 조공체제와 별개로 무역의 독자적 기능(밀워드, 디코스모): 무역에 의한 조공체제의 쇠퇴(페이뱅크)
- 해양무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 동아시아 지역경제 및 재정체제 주목(하마시타 다케시)

○ 전쟁

- 조공체제로 규율되던 동아시아에는 웨스트팔리아적 평화를 유지할 수 없었던 유럽만큼이나 전쟁이 많았다(로사비 2011)
- 당과 번속국가간 세 종류의 전쟁 존재 ① 양국간 관계조정 ② 번속국가의 봉기 진압 ③ 다른 번속국가들 간의 관계 중재 (리대룡 2006)

7. 결론

영국학파 이론의 유용성: 국제사회의 큰 그림 그리기  
전통 동아시아 정치의 개념적 재구성